

‘유엔결의 위반 발언’ 언짢은 北 반기문 총장 방북 갑자기 불허

불쾌감 표현 ‘보이콧’...남한과 대화 사전 차단 목적도 외교적 즉흥성 놓고 김정은 경험 부족·정치 미숙 분석

북한이 2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아무런 설명 없이 방북 허가를 갑자기 취소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반 총장의 북한 방문을 무산시킨 가장 큰 이유로 최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반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 등 도발에 대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북한 정부에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같은날 오전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막식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개혁, 비핵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북한이 반 총장의 이런 발언에 불쾌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 방북을 ‘보이콧’ 했다는 해석이다.

또 북한의 정확한 속내는 알기 어렵지만, ‘남북대화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

던 반 총장을 오지 못하게 막으며 남한과 ‘대화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철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반기문 총장이 방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수 있고 북측에서도 리수용 외무상 등을 보내 김정은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 총장의 남북대화 메신저 역할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나 핵문제 해법 등을 둘러싼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남북관계에 감정싸움을 벌이는 조건에서 반 총장이 이벤트를 일으키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 발언이나 국가정보원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속칭 발표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품고 항의의 뜻으로 반 총장의 방북을 무산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 주변에 ‘대화

국면’ 분위기 조성을 반대하는 강경파가 득세한 것을 이유로 꼽는 시각도 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속칭 등 최근 북한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감안할 때,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변에 ‘강경파’들이 득세하면서 미국 및 남한과 대결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기보다는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대결적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한 대응에 낮고 내부 결속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북한의 속내가 어떤 것이든,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선절기 념행사 참석도 임박해 취소했던 것에 이어 이번 반 총장 방북 허가도 하루 전날 돌연 철회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외교적 즉흥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쓰고 돌연 방북 허가를 철회한 것은 나이가 어린 김정은은 제1위원장의 외교 경험 부족이나 정치적 미숙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북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 아직 멀었다”

원펠드 美 합동참모본부 차장 최근 발사 사진 조작 가능성

제임스 원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원펠드 차장은 이날 오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 북한의 SLBM 기술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주 전 북한이 SLBM 시험발사 능력을 과시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온 종게도 북한은 자신들의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와 ‘스핀 마스터’(부정적인 의미의 선전 전문가)가 우리를 믿게 하려는 것만큼 기술 수준이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SLBM 기술능력을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덧붙였다.

원펠드 차장은 그러나 “북한이 만약 결국에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곧 한국과 일본은 물론 현지 주둔 미군들이 북한의 SLBM을 사전에 탐지하기 어려

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역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원펠드 차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외교관과 협상가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으로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파트너(한국) 국가를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매년 결핵으로 2500명 사망

북한에서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매년 2500여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밝혔다. 유엔은 최근 발표한 ‘2015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매년 3900여명의 다제내성 결핵(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만성 결핵)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

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결핵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특히 환자를 돌보는 여성과 아이들이 결핵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으면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북한 전체 결핵 환자 중 1.9%가 어린이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반도에 사드 배치땀 중국은 미국 손바닥 안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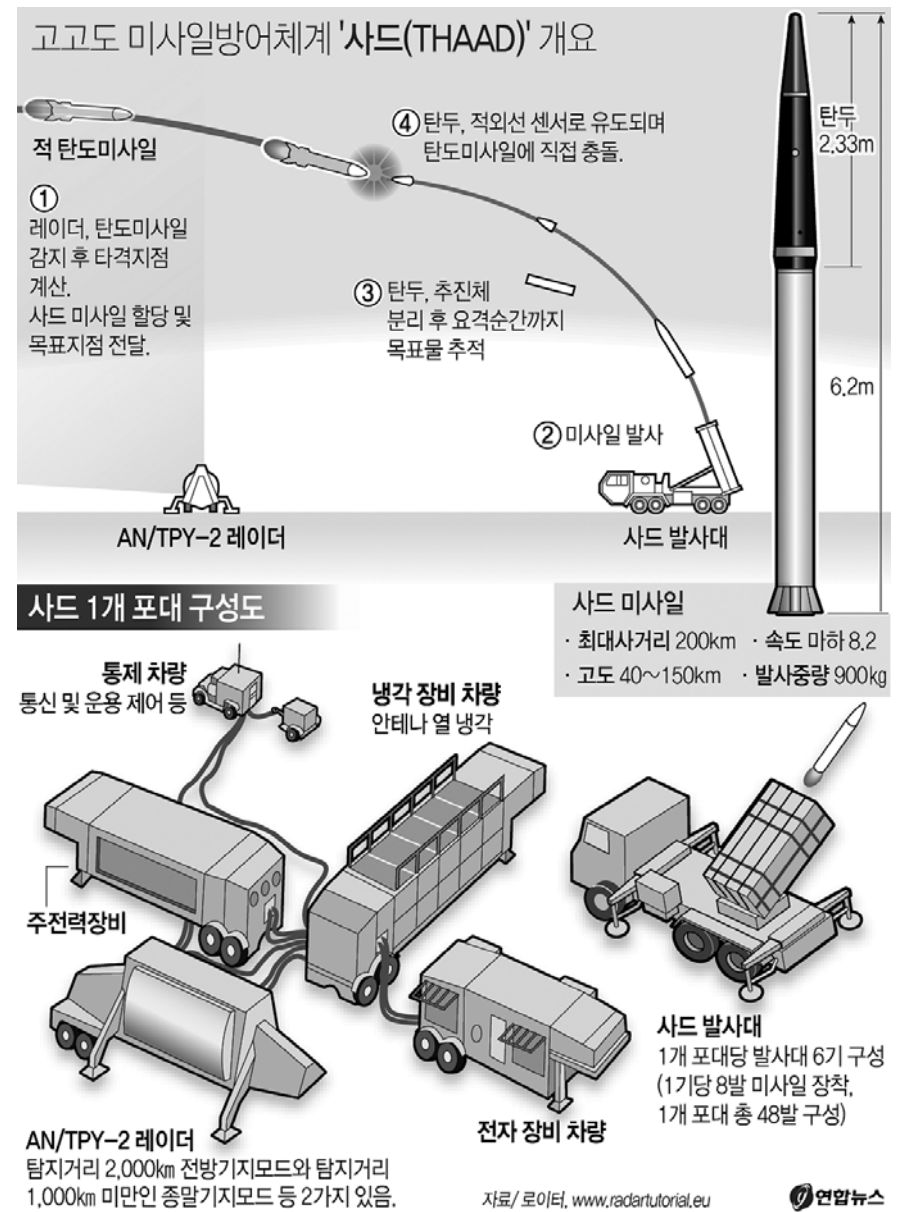
사드란 무엇인가

고도 40~150km 대기권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격추 목적

탐지거리 2천km 고성능 레이더 중국 핵 전력 감시 가능

美사드 한반도 배치 후보 거론 지역

★2014년 주한미군사령부 실시 진행



미국이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불지피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패트리어트(PAC-3)를 중심으로 한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를 보완한 것이다.

통상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상승→비행→종말(terminal)→하강 등 5단계를 거친다. 3단계인 비행구간에서 격추하는 미사일이 이지스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이다. 최대 속도 마하 7.88인 SM-3는 사드보다 높은 250~500km 고도로 나는 ICBM 등 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통상 ICBM은 발사 후 대기권을 벗어났다 다시 진입하는 경로를 가지며, 이 가운데 최고고도에서 떨어지는 4단계인 종말에서 맞춰 격추시키는 것이 사드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 주변국 특히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다.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나 되는 데다 파장이 짧은 X 밴드의 특성을 이용해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ICBM 등을 겨냥해 이미 일본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AN/TPY-2 레이더를 배치해놓았다. 이 레이더가 우

리나라에 배치되면 중국 내륙 깊숙한 기지에서 발사되는 ICBM은 물론이고 서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국 핵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즉각 탐지와 타격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사드포대를 구성하는 이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ICBM과 SLBM 등 중국의 전략 핵전력은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는 셈이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2년 백령도에 이 레이더 배치 허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사드 배치 요청오면 주도적 판단·결정할 것”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 입

장을 통보해온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과 현재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존 케

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사드 문제를 언급해 국내에서 공론화 논란이 재차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방한 마지막 행사인 주한미군 장비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600g 120,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환 1kg 360,000원
600g 8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